

머 리 말

필자는 두 개의 의학관계 종합학술지의 편집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다. 대한의학회의 공식기관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공식학술지인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SJM)이다. 전자에는 1987년 즉, 창간 다음해부터 1994년까지 7년간 편집인으로 근무하였고 후자에는 1994년부터 1년반동안 편집인이었다. JKMS는 날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영문 종합의학학술지로서 자리잡았고, SJM은 초창기 대학 학술지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퇴역하였다. 같은 종합학술지이면서도 운명을 달리한 두가지 잡지를 편집인의 입장에서 돌이켜 보며 느낀점의 일부를 서술하고자 한다.

1. 편집인으로서의 배경

필자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는 몇몇 상업 종합학술지가 있었을뿐 전문학술지가 거의 없었다. 綜合醫學, 最新醫學, 中央醫學이 상업잡지의 대표적인 것들 이었다. 필자는 이들 잡지에 여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자연히 자신이 투고한 논문이 어떻게 처리되어 잡지에 실리는가를 알게되었다. 편집인이라는 사람과도 알게되었고 따라서 이들이 하는일이 무엇인가도 알았다. 그러나 당시의 편집인은 우선 의학자도 아니고, 원고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의 주업무는 원고를 수집하여 어떻게든지 매달 한권씩 발간할 수 있는 분량을 채우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는 투고하면 대개는 투고하는 즉시 그달에 그 논문이 게재되었다. 형식상 편집위원회는 있었지만 편집위원이 이것을 학술적으로 심사한 경우는 적어도 필자의 경우는 없었다. 이상 3가지의 월간잡지에 실린 논문이 상당수에 달하였으나 현재 이들 논문은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문헌에도 거의 인용되지 못하고 있다.

1960년대 말에서부터 각 분과학회에서는 전문학술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시기에도 편집인의 역할에 대하여 알고 편집인이 된 경우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무도 진정한 의미의 편집인의 역할을 해본 사람이 당시의 국내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학문적 전통이 없는 나라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1960년때면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도입된지는 70년에 가까운 시절이었으나 우리는 그동안 우리손으로 제대로된 학술지를 만들어보지 못하였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학회잡지(朝鮮醫學會雜誌)가 있었으나 이것은 한국에 와있는 일본 의사들의 잡지였고 한국인은 편집

인은 물론 편집위원으로도 참여하지 못했다. 1930년에 한국사람끼리 만든 학술지인 朝鮮醫報가 연2회 발간되었으나 이것은일제 강점기에 한국사람도 의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정도이지 학술지로서의 면모는 갖추지 못하였었다. 또 1933년대에 간행된 Journal of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는 영문학술지였고 또 한국학자가 관여하였었으나 몇 년 못가서 없어졌다. 이렇게 해방전에 학술잡지의 편집인으로 활약해본 한국사람이 거의 없었고 1945년 광복후에도 사회의 혼란에 뒤이어 닥친 6.25 동란으로 학술지다운 학술지가 태어날 겨를이 없었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중 당시 일본에서 발행되는 의학관련 전문 혹은 종합학술지에 투고경험을 가졌던 지극히 한정된 숫자의 한국인 학자들이 논문의 경쟁성과 학술지의 우수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다고 판단된다. 당시의 우리나라 의학이 연구보다는 진료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방면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

이와같은 환경에서 자란 우리나라 의학인력이 어떻게 갑자기 좋은 학술지를 만들고 좋은 편집인이 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개인적 차이는 있었겠지만 학회마다 잡지는 창간해 놓고 원고가 부족하여 때(연2회 - 6회)가되면 제주껏 원고를 채워 해당호를 무사히 발간하는 사람이 훌륭한 편집인이라는 통념이 1980년대에 까지도 품미하였고 현재도 잡지에 따라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빨리 좋은 편집인이 탄생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 JKMS 편집인으로서의 경험

1987년 4월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편집인의 책임을 맡게되었다. 창간호의 편집인은 당시 의학회 학술이사였던 장우현 교수였는데 의학회에 간행이사가 신설되면서 이 자리에 필자가 임명되었고 당연히 JKMS의 편집위원장이 된 것이다. 당시 필자는 대한병리학회지의 편집위원으로 10년, 그리고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의 편집위원으로 2년간 일해본 경험밖에는 없었다. 더욱이 처음부터 영문잡지로 시작한 JKMS의 편집책임을 맡으니 참으로 난감하였다. 나 자신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그때까지 필자가 외국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것은 15편 정도뿐이었다. 더욱이 편집책임자로서의 경험은 전혀없었다.

그동안은 자신이 투고한 논문에 대하여 게재승인이 나기만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제는 투고된 논문을 평가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나 자신이 논문제출자로서 혹은 편집위원으로서 논문을 심사한 경험은 있으나 편집인으로 투고된 논문을 누구에게 보내 심사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은 없었다. 어떻게해야 읽히는 잡지를 만들 수 있는지도 몰랐다. 당시는 편집인으로서 경험담을 들려줄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결국 혼자서라도 해보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제일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JKMS를 국제학술지의 규격에 맞추어야 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ISSN)를 부여받기 위하여 독일 본부로 그 절차에 대한 문의편지를 보내놓고 다음은 국내 정기간행물 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문공부에 신청하였다. 다음은 편집위원들이 도움을 받아 투고양식과 잡지의 양식을 일관성있게 하기 위하여 투고자에게 원고가 접수된 후의 진행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형식을 만들었다. 원고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내용이 나의 전공분야와는 상당히 먼 경우 그 방면의 어떤 사람에게 심사를 보내야 할지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할수 없이 처음에는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중 해당분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분들은 성의껏 시간내에 심사를 해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사위원의 풀(pool)을 넓혀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인적자원 정보가 어디에도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도 도움이 된 것이 대한의학회발행 의학교육자명단 이었다. 그렇게하여 어느정도 심사위원 명단이 분야별로 정하여졌고, 또 몇 년 지나니 우수한 심사위원 명단도 만들 수 있었다. 한 논문당 2명씩 심사위원을 정하여 보내면서 심사할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같이 발송하였고, 제 심사를 하더라도 편집인을 통하여 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심사자에게 저자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하였으나 편집위원회의 논의결과 그대로 두기로 하되 심사자의 이름은 물론 비밀로 하였다.

편집인의 역할중에는 편집실무 즉 원고접수, 발송, 심사자에게 발송, 접수, 제심사 발송, 접수, 사진의 보관, 출판사에게 인도, 별책확인, 게재료 접수 확인등 편집과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많았으나 의학회로부터 보조인력지원은 없었고 과내의 사무원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부편집인과 조편집인이 직제상에 있으나 이분들게 어떤일을 맡길것인가에 관해 아는바가 없었다. 같은과에 근무하는 조편집인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위촉한 심사위원의 후보를 추천하는 정도였고 실제일은 편집인과 사무원 그리고 편집대행자 3인의 몫이었다. 편집인 자신도 자신의 주직장이 있고 처리할 업무가 많은데, 여기에 편집인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상상도 못할 무거운 짐이 되었다. 투고되는 모든 논문을 일차적으로 대충읽어보고, 심사위촉을 하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은 논문체제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영문교정자에게 보내고, 그의 의문점을 저자에게 연결시켜주는 등 이것은 어떤 면에서 "full time job"이었다. 당시 절감한 것은 이와같은 일을 아무에게나 쉽게 책임지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잡지가 좀 일관성있게 되고 투고되는 원고도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편집인과 편집위원들은 고무되었고 이제는 JKMS를 Index Medicus에 등재신청을 하여야겠다고 판단하였다. JKMS 2년치를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으로 보냈고 얼마후에 등제가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소식에 발행인(이문호 의학회장)은 축하연을 베풀고 자축하였다. 이것이 1989년 11월이었다.

Index Medicus에 JKMS가 등제되면서 투고논문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

있고 논문의 내용도 더욱 다양해지고, 투고논문의 소속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993년부터 격월간으로 하였고 인쇄가 더욱 선명하고 사진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쇄소와 협의하여 인쇄에 비용정비를 상향조정하였다. 1994년 4월 JKMS편집책임을 박찬일 교수에게 넘기고 물러났다.

3. SJM 편집인으로서 경험

필자는 1994년 4월 서울의대의 공식학술잡지인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SJM)의 편집인이 되었다. 서울의대 학술지는 1960년에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다가 1985에 이르러 영문학술지로 바뀌었고 투고자 거의 전부가 서울의대 현직교수였다. 필자는 1985년부터 9년간 이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잡지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SJM의 그동안의 가장 큰 문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점차 투고원고가 감소하는 것이었다. 투고된 논문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투고원고의 절대수가 부족하였다. 이것은 편집인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다. 이미 이전 편집인들이 원고부족의 원인을 여러모로 분석한결과 다음의 몇가지가 부각되었다. 즉 SJM이 종합학술지이기 때문에 독자에게 널리 알려질 기회가 적고, 국제색인지인 Index Medicus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인용될 기회가 적고, 교수들의 연구가 활성화 하면서 점차 해외학술지에 투고하는 경향이 커져 자신이 작성한 영문논문을 외국전문학술지에 보낸다는 것, 그리고 국문논문의 경우도 SJM 보다는 국내 전문학술지에 투고하려하기 때문이었다. 또 한가지는 국내의 연구비 지급기관에서 대학에서 발행하는 대학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요인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수가 점차 줄어가고 있을 무렵에 필자는 편집 책임을 맡게되었다. 아마도 SJM의 발행인은 필자가 오랜기간동안 JKMS의 편집인으로 경험이 SJM을 부활시킬 수 있겠다고 판단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기술한 여건들이 SJM을 회복시키기에는 너무나 절실하게 불리하였다. 학내교수들이 쓰는 논문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SJM에의 투고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SJM은 대학학술지로서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 기회에 SJM을 “발전적으로” 폐간 함으로서 교수들로 하여금 투고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투고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오히려 소속기관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편찬위원회는 발행인에게 SJM의 폐간을 건의하게 되었다. 발행인(학장)은 전체 교수회의를 소집하고 이것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1995년 12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하였다.

맺 음 말

우리나라에서 의학관계 학술지의 역사는 짧다. 따라서 전통있는 학술지가 탄생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의 여명기에 시작된 두 개의 종합학술지의 편집인으로서의 경험을 서술하였다. 편집인의 임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시절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편집인의 중요성이 최대로 부각되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을 실감하게 된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위치를 파악하는데 필자의 작은 경험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金鍾暉 : 우리나라 現代醫學 그 첫 世紀. 1987, 최신회의학사
2.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현황과 전망[심포지움]. Seoul J Med 36:213-240, 199
3. 서울의대학술지가 걸어온 길[심포지움]. Seoul J Med 36:241-260, 1995